

스테이블코인 패권 잡는다... 함영주 회장 '큰 그림' 착착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 물밑 준비 작업 '이상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폭풍 전야의 정적이 감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담은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입법 표류로 국내 사업과 시계가 멈춰선 듯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가장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금융그룹이 있다.

법제화... '51% 룰' 속 '디지털자산 TF' 풀가동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걸림돌 중 하나는 '구조 갈등'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51% 룰'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자본 50%+주 이상을 의무화하는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하는 반면, 비은행권은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중이다.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단계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의 일정 조율 불발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본격 입법은 6월 지방선거나 9월 정기국회 이후, 최악의 경우 연말 이후까지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금융이 택한 건 '정공법'이다.

우선 그룹 차원에서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하고 은행·카드·증권 등 관계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넘어 준비금 관리, 유통망 확보, 보안체계 구축 등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다져놓은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1월 BNK금융, iM금융 등 5개 금융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법상 단일 은행의 자본 보유 제한 15%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 4개 은행의 공동 출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하나은행은 다수의 금융사를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제도적 변화와 관계없이 즉시 발행 주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 연합군'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겠다는 기민한 의지다.

'국내 도입 찬성' 신현승의 기초 선화... 법제화는 의시계 앞당길까

입법이 주춤한 사이, 정책 당국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시절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비판해온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의 전향적 태도가 대표적이다.

BNK·iM 등 국내 5개 금융사와 공동 컨소시엄 결성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즉시 시장 선도할 기반 마련 美 서클·크립토닷컴과 글로벌표준 선도 위해 맞손 디지털 자산 보안 위해 비트코와 합작 법인도 설립

신 총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안정 저해와 외환 규제 무력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도입 초기 은행권 중심의 우선 발행과 관계 기관 간 법적 협의체 마련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는 하나금융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 전략에 정책 정당성이 실리는 대목이다.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은 여전히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도전이 돼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이와 보안·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당국간 정책 갈등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씨클·두나무와 그리는 글로벌 금융 지도... '24시간 국경 없는 결제'

하나금융의 전략은 단순 발행권 확보에 머물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인 '유통'과 '환류'를 위해 글로벌 및 이중 산업계와 정교한 그물망을 잇고 있다.

우선 하나카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인 씨클(Circle),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방한 외국인인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결제 마케팅을 진행하며 국내 결제 인프라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테스트 중이다.

하나금융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 송금 서비스 검증(PoC)을 마친 상태다. 기존 SWIFT 망을 거치지 않고 두나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아(GIWA) 체인'을 활용해 송금 정보를 블록체인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송금 속도와 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했다.

이를 토대로 올 3분기까지는 예금도전을 활용한 차세대 외화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손님이 입금한 현금을 바탕으로 예금도전을 발행해 송금 수발신 채널 간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 골자다.

하나금융은 홍보도전의 발행, 전달, 지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은행의 기존 전산망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시험한 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실제 서비스로 출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SWIFT 기반의 외화 송금 구조가 아닌 24시간 중단없는 실시간 결제와 낮은 비용이 일상 이 된다.

신한·삼성과 '코인 드림팀'?... '메가급 풍문'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인 만큼 떠도는 '커리큘'도 메가급이다. 해당 금융지주나 관계사 확인 없이 생성된 정보들이 업계 사실인 양 확산되고 있다.

'하나금융이 신한금융과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점목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라는 게 그중 하나다. 일각에선 '캘럭시 스마트폰 자체가 곧 스테이블코인의 지갑이자 결제 단말기가 되는 새 시대의 서막'으로까지 구제화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업계 취재를 종합했을 때 "구체화 된 내용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떠도는 내용에 의하면) 삼성페이인지 삼성페이인지, 혹은 카드인지 추진 주체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식 자료로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건너 건너 들은 정보 몇 줄이 '포스트 카드 시대'를 여는 코인 드림팀'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만큼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술적 완결... 발행·보관·관리 아우르는 플랫폼과 '예금도전' 실증

하나금융은 기술적 완성도로 디지털자산의 '철통 보안'도 조준한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기업 비트코(BitGo)와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를 설립한 뒤 현재 국내 수탁업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발행 이후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까지 그룹 내에서 완결 짓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하나은행은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 실증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점 CU에서 예금도전 기반 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전국 1만8800여 개 CU 점포에서 시범 운영 중으

로, 10월 상용화가 목표다. 하나은행 고객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연동한 예금도전을 매장 내 바코드나 QR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도화' 문 열리는 순간, 인프라 확보가 곧 주도권 선점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기점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격렬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선점한 사업자를 필두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초기 신뢰 구축'이 시장 패권을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구축된 결제 인프라가 자리 잡으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경로의 의존성'이 생긴다. 결제 인프라와 유동성을 형성한 선발 주자가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격차가 고착화되면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 힘든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형성된 유통망과 유동성을 뒤집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함영주 회장 '생태계 주도론'=경쟁력도 지키는 '디지털 방어선'

하나금융이 현재의 규제 공백기를 대기 기간이 아닌 후발 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쌓는 기회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시장 지배력이 점유율을 넘어 업계 표준과 유동성 고지선점으로 직결되는 시장 구조를 꿰뚫어 본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가 "아직 경기장이 건설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제반 작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법 논의가 재개돼 법적 틀이 갖춰지는 순간 공격적인 인프라로 디지털 영토 확장에 나설 준비는 이미 갖춰졌다.

이는 올해 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함영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마니마브 가속화 등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며 "코인 발행, 준비금 관리, 안전한 보관체계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변화의 격랑에도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실생활 연계를 위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 코인 유통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함 회장의 전략이 디지털 금융시대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으로 진화하는 순간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단위: 조 달러



자료=블룸버그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계 동향

네이버	네이버페이·네이버·두나무 합병, 디지털자산 플랫폼 목표
카카오	그룹 내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협업 체계 구축
KB금융	시중은행 첫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신한금융	배달앱 땀겨우 통해 기술검증(PoC)
우리금융	삼성과 협업, 삼성 월렛 내 결제·송금 기술 연동
NH농협금융	해외 관광객 코인 통한 택시·리프트 시범사업

하나금융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

입법 현황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표류 중

한국은행 VS 비은행권

51%룰 지지 vs 혁신 저해 반발

6월 지방선거 또는 9월 정기국회 이후 전망

하나금융 TF 전략

디지털 자산 TF

은행, 카드, 증권

5개 금융사 컨소시엄 결성 (BNK금융·iM금융·SC제일은행·OK저축은행·JB금융)

51%룰 요건 충족 →법 통과 즉시 출발

글로벌 파트너십

- 글로벌 결제 표준 선점 협력
- 씨클(USDC 발행사)
- 크립토닷컴(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 GIWA 체인 외화 송금 PoC원로
- 두나무(업비트)

→예금도전 활용 차세대 외화 송금 인프라 구축

기술 인프라

- 비트고코리아
- CU예금도전 결제
- 디지털자산 수탁 합작법인 (NYSE상장)
- 전국 1만8800개 점포 시범 운영
- 10월 상용화 목표

시장 선점 논리

인프라 선점 → 경로 의존성 → 업계 표준 → 유동성 고지 선점 격차,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어려움

함영주 회장 전략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